산업통상부

보도참고자료

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. 9. 16.(수)

◈ 최고가격제 이후 소비량 휘발유 2.1%, 경유 8.4% 감소

◈ 9~10월 원유 90% 이상 확보, 11월 이후에도 문제 없도록 안정적 관리

◈ LNG도 내년 3월까지 수급 차질 없도록 대응

□ **최고가격제**로 인해 **휘발유 소비가 늘고 있다는 것**은 사실이 아닙니다.

○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**3월 둘째주부터 8월까지 국민의 실제 석유제품 소비량**(주유소 총 소매판매량)은 전년 동기 대비 **휘발유는 2.1%, 경유는 8.4% 감소**하여 **합산 5.6% 감소**하였습니다.

- 7월 주유소 소매판매량은 **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 2.2%, 경유 8.6% 감소, 8월도 휘발유 1.2%, 경유 8.8% 감소**하였습니다.

단위 (kl)	'25년			'26년					
	휘발유	경유	계	휘발유	전년 대비	경유	전년 대비	계	전년 대비
1월	1,349,417	1,659,919	3,009,336	1,437,111	+6.5%	1,730,283	+4.2%	3,167,394	+5.3%
2월	1,110,286	1,479,506	2,589,792	1,167,438	+5.1%	1,323,369	△10.6%	2,490,807	△3.8%
3월	1,111,691	1,510,761	2,622,452	1,155,606	**+4.0%**	1,495,824	**△1.0%**	2,651,430	**+1.1%**
4월	1,139,654	1,562,891	2,702,545	1,055,598	**△7.4%**	1,384,996	**△11.4%**	2,440,594	**△9.7%**
5월	1,450,702	1,922,000	3,372,702	1,434,386	**△1.1%**	1,749,360	**△9.0%**	3,183,746	**△5.6%**
6월	1,173,487	1,536,895	2,710,382	1,145,357	**△2.4%**	1,423,686	**△7.4%**	2,569,043	**△5.2%**
7월	1,568,741	1,918,489	3,485,230	1,534,747	**△2.2%**	1,754,063	**△8.6%**	3,288,809	**△5.6%**
8월	1,259,542	1,510,584	2,770,135	1,244,044	**△1.2%**	1,377,439	**△8.8%**	2,621,482	**△5.4%**

* 월별 통계는 각 주별 합산으로, 통상적인 월 기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○ **휘발유 소비가 경유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**한 것은 **휘발유 기반 차량**(휘발유+하이브리드) **증가, 경유차 감소 등 운송 수단의 구조적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**됩니다.

-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, 지난 10년간 **국내 휘발유 소비량**은 **연평균 1.9% 증가, 경유 소비량**은 **연평균 1.7% 감소**하였습니다.

- 국토부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에 따르면, '20년 대비 '26.8월 **휘발유 기반 차량**은 **약 26% 증가**하였고, **경유 차량**은 **약 17% 감소**하였습니다.

* 휘발유 기반 차량(휘발유+하이브리드, 천대): ('20년) 12,084 → ('23년) 13,856 → ('26.8월) 15,199
경유 기반 차량(천대): ('20년) 9,992 → ('23년) 9,500 → ('26.8월) 8,274

□ 최고가격제는 **그간 중동전쟁**에 따른 **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**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는 **'민생의 방파제' 역할**을 하고 있습니다.

○ 최고가격제로 중동전쟁 이후 **3~8월 간 소비자물가상승률**을 **평균 0.6%p 인하**시키는 **효과**가 있었습니다.

○ **해외 주요국**들도 **중동전쟁 위기에 대응**하여 **석유가격 안정화 정책**을 시행중에 있습니다.

- **EU, 일본, 중국, 동남아** 등 다양한 지역·국가에서 가격 상한, 보조금 지급, 유류세 인하 등 **석유가격 안정 정책**을 실시중이며, **일본**의 경우 **석유 보조금 제도**를 통해 **4월부터 현재**까지 **휘발유 리터당 170엔, 경유 리터당 160엔 이하의 가격**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.

□ 정유업계 **누적 손실 5조원**을 **보전**해줘야 한다는 **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.**

○ 정유업계에서 언급하는 **누적 손실**은 **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반 금액으로 추정**되나, 정부는 **'원가 기반'**의 **손실보전 재정지원 원칙**을 **최고가격 시행 초기**부터 밝혀왔습니다.

○ 정부는 해당 원칙 아래, **「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」**을 **제정**하고, 7월부터 **'최고액 정산위원회'**를 **운영**하며 **손실보전 재정지원 절차**를 **차질없이 진행**하고 있습니다.

□ **원유 수급**과 관련, **9~10월 도입 원유는 전년대비 90% 이상 확보**했고, 이후에도 **중동상황을 계속 모니터링**하면서 **다양한 정책수단**을 통해 **원유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**해나갈 예정입니다.

○ **11월 원유 수급**은 전쟁 초기인 **4월에 비해 양호한 상황**으로 평가되고 있으며, 정부는 **8.24일부로 비축유 SWAP 제도**를 **시행**하여 **일시적 수급 차질에 대응**하는 한편, **4~6월 시행했던 다변화 운임차액 확대**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**준비**하고 있습니다.

□ **LNG 공급**과 관련, **중동産 LNG 대체물량**을 **확보**하였으며, 금년 동절기(~'27.3월)까지 **국내 LNG 수급**에 **차질이 없을 것**으로 전망됩니다.

○ **나프타도 9~10월 물량을 문제없이 확보**하였으며, 현재 계약중인 **11월 이후 물량**은 주간 나프타 수급 점검 회의 등을 통해 **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**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보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기 (044-203-524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섭 (044-203-5246)
	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	책임자	과 장	양정화 (044-203-5220)
		담당자	사무관	김만식 (044-203-5215)
			사무관	김민성 (044-203-5223)
	자원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	책임자	과 장	한주현 (044-203-5230)
		담당자	사무관	윤철희 (044-203-5232)
	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건혁 (044-203-4930)
		담당자	사무관	양여운 (044-203-493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